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46-9766 x 702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Bishop and 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

Monday Video Message by Bishop Sally Dyck: May 4, 2020

저와 여러분이 거의 8년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한가지는 아셨을 듯 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게 되는지 항상 감탄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시기에, 우리가 개인, 가족 및 교회의 삶이 자택격리명령에서 해제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기 시작하는 지금, 저는 여태껏 좋아하지 않았던 책인, 레위기에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지침서입니다. 그 책이 쓰인 배경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도록 만들고, 더이상 이집트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또한 이 율법서에는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이 마주칠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끝난 후 모든 것이 너무 새로워져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들에 대한 이전의 해답들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레위기에는 어떤 율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Common English Study Bible 인데 이 버전의 성경책에는 많은 주석과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헌금에 관련된 율법입니다. 이는 레위기의 약 4분의 1, 즉 총 28장 중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주제로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책이 그렇게 하도록 쓰여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온 정성을 다하여 규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의하면 헌금이 덜 줄어든 교회들은 온라인 헌금을 장려하는 교회들입니다. 만약 아직 온라인 헌금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각 교회에서 온라인헌금을 실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좀 더 오랫동안 세계적인 전염병의 시기를 감내하여야 할 듯 합니다. 앞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도

게시겠지만, 또한 많은 분들은 한동안 현장 예배에 참석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각 개체 교회들 또한 온라인으로 선교분담금(see the website웹사이트 참조)에 참여해주셔서, 연회가 건강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율법은 “예배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레위기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저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배와 관련된 사역뿐만 아니라 주일 학교, 어린이 사역, 소그룹, 여름성경학교와 같은 영성훈련그룹을 위해서 최상의 예배방법을 발전시키고 신중하게 여러 사람들로 부터 좋은 자료를 모으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교회 사무실이 안전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과 음식 및 노숙자 사역과 같은 봉사활동 부서, 그리고 목회 돌봄 및 특별 행사를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도 했습니다. The ReTurn(교회복귀)” 팀은 5월 중순경에 이러한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때, 그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부분은 11~15장에 이르는 “정결 예법”입니다. 이것은 그당시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이번 주중에 연회의 위기관리 책임자인 Dwayne Jackson과 보험위원회는 우리 연회의 교회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문서는 각 목회자에게 보내졌지만 연회 웹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율법은 음식과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복귀 (ReTurn)팀이 친교시간 (Coffee Time) 과 교회점심(Potlucks)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즐겨먹는 음식을 실제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또한 여러 율법 가운데서 “속죄일”에 대한 지침과 마지막으로 “축복 언약 및 저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속죄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욕기퍼(속죄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신앙에서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열망하며 심지어 연회에서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방식들에 대해 슬퍼하며,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애통해 할 것입니다. 저주 언약은 약간 위압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나님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어진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줍니다.

레위기는 제가 읽는 CEB성경버전의 개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단지 광야의 사람들이 지켰던 지침서”라고 소개할 만큼 기독교인인 우리가 거의 읽지 않는 율법들을 모은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레위기의 율법을 읽고 지키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단에서 내 자신과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시해준 최선의 예방책을
숙지하고 잘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우리 연회의 교회들과 사역, 목회자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19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Sally Dyck